

사회

대입상담 한 번에 50만원이라니...

입시정보 목마른 광주·전남 학부모들 분통... 지역 설명회 없어 서울까지

“교사 믿고 진학상담 가장 바람직”

“진학정보에 목마른 수험생과 부모들을 상대로 ‘입시장사’를 하는 시장 같았습니다.”

광주 S고교 3학년 담임 A씨는 서울에서 열린 한 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뒤 크게 실망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입시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정보 수집을 위해 각종 입시 설명회에 참석했으나, 되레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정보들이 적잖았다”며 “지역 배치표 상 합격·지원가능 점수대가 너무 높고, 학과의 선호 추세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실 입시학원 설명회 말미에는 어김없이 1대1 진학상담을 유도, 무려 건당 50만원 상담료를 받고 있었다. 주 수강료 300만원 짜리 논술수강 권유도 예사였다.

수능을 마친 광주·전남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학 정보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데다 수능점수 하락에 따른 수시 2차 모집, 하향지원 추세 강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입시 정보의 중요성이 여느 해보다 더 부각되고 있지만, 지역 설명회는 사실상 없다.

반면, 서울지역에서는 수능이 끝난 후 지난 20일~21일 메가스터디와 이투스 청솔, 유웨이 중앙, 대성학원 등 4개 대형 학원의 입학설명회가 잇따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수천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정보전쟁’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는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실 입시 전문학원이 집계한 수능 가

채점 결과와 일선 고교에서 파악한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원점수 기준 합격선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 학부모들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광주·전남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역에서 열리는 입시 설명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지 못해 수도권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사실 입시기관 등을 중심으로 건당 수십만원의 받는 고액 맞춤형 진학 지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지역 한 고교 교사는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기관에서 광주·전남 지역 입시 정보의 공백을 메워줄 책무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수험생·학부모들이 입시정보를 믿고 진학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연평도 포격’ 허위 문자·유언비어 광주·여수·전주서 3명 검거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린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25일 지인의 휴대전화에 ‘연평도 포격으로 예비군 소집령이 선포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모(23·광주 모대학 3년) 씨를 전기통신기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같은 학과 학생 등 16명에게 발신번호를 바꾸고 ‘예비군 긴급소집, 4시간 내 집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장난삼아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여수경찰은 지인의 휴대전화에 ‘동원 훈련 소집안내 2010.11.24 08:00 ××초등학교집결, 광주지방방무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명모(27)씨를 전기통신기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거했다. 경찰

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후배 이모(26)씨 등 8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같은 날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글을 게시한 이모(34)씨를 전기통신기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17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부가 대포포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상태를 촉발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 역시 이날 ‘국방부가 예비군 징집 명령을 내렸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10~20대 남성 9명을 전기통신기법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mihang@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 김철수기자 knews@kwangju.co.kr



황주홍 강진군수직 유지
향소심서도 벌금 70만원

예상합격선 고교에 제공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의 올해 대입 모집단위별 예상합격선을 추정할 수 있는 진학지도 소프트웨어를 일선 고교에 제공한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대교협이 전국 250여개 고교의 올해 수험생 가채점 결과 7만여건을 분석해 도출한 모든 4년제 대학의 모집단위별 예상합격선이 담겨 있다.

여기에 수능 영역별 성적과 내신 수준, 지방 분야 등을 입력하면 각 대학 및 모집단위별로 합격 가능성을 자동으로 계산해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여준다.

진학담당 교사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어, 수험생은 담당 교사와 상담해야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 아이 뽑혔다”
광주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 추천일인 25일, 교내 강당에서 열린 추천에서 한 학부모가 ‘당첨’이 표기된 쪽지를 받아 들고 기뻐하고 있다. 광주교대 신입생 모집에는 정원 96명에 782명이 지원해 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보이스피싱 꼼짝마!”

본촌동 우체국 오정숙 팀장, 3천만원 송금 막아

6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3000만 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다.

25일 전남체신청에 따르면 K(여·69)씨는 지난 24일 오전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카드가 발급돼 대금이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며 타기관은 위험하니 우체국 예금을 인출해 A은행에 입금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다급해진 K씨는 즉시 우체국을 찾아가 자신의 정기 예금 3000여 만 원을 해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둥대는 K씨를 지켜본 광주시 북구 본촌동 우체국 오정숙 팀장(사진)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낯선 사람에게서 걸려온 전화 아니냐.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송금을 막았다.

K씨는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으면 힘들게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뻔했다”며 고마워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교협 형사1부(부장검사 장병우)는 25일 선거 때 상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향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지역 여론 노획 등에 매일 30만~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황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황 군수는 지난 1~4월 노획회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지난 5월 상대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반박 내용의 글을 공무원을 통해 지역신문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광주공동행동 농성·서명운동

촛불문화제도 열려

인권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광주공동행동’은 25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은 운영철차를 무시하고 인권위원들의 합의없는 독단적 행동을 일삼았다”며 사퇴를 촉구했

다.

또 “현 상황을 목과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의 본 모습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하며 인권위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공동행동은 다음달 10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며, 동구(구)삼복서점 일대에서 매주 1회 촛불문화제 개최와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후보 경력 허위 기재 등 이의 제기 전남대 총학생장 선거 개표 갈등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출마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개표에 난항을 겪는 등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치러진 2011년도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이 50% 미만을 기록해 이틀남짓 연장되며 최종 투표율 54.24%로 마감됐지만 25일 밤 8시까지 운동권 후보의 이의 제기로 개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25일 전남대에 따르면 운동권 후보 ‘로그인’(운동권 경제4·노승아 신방

4)이 비운동권 후보 ‘전설’(박은철 임공4·송은광 경영4)의 경력 허위 기재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의를 제기해 이날 밤 8시까지 개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비운동권 후보는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로 경고 1회를 받았으며, 불법유세 등과 관련 주의 2회(경고 1회로 조치)를 받은 상태다. 경고 3회 이상 누적되면 자동으로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허영철 해남부군수 체포 광주지검, 업자에 아파트 대물로 받은 의혹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허영철(57) 해남부군수를 2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남도 예산담당관 등을 지낸 허 부군수가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아파트 대물로 받았다’는 첩보와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간부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모 건설업체 대표의 일부 계좌에

○목욕탕에서 금품을 훔친 뒤 경찰의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짜’를 부른 10대가 4시간 만에 범행사실이 들로나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조모(16)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광주 남구 방림동 한 목욕탕의 열려있는 샤워실에서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던 양모(60)씨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양씨와 같은 시간에 목욕중이던 조군은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될까봐 목욕탕 주인에게 ‘2만원이 든 내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면 의심받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062) 227-8088